

전남소방, 심폐소생술 경연...도민 응급대응 역량 끌어올려

44개 팀 352명 참여...학생·군인·일반인 등 전 계층 참여 확대 최우수팀 전국대회 출전...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모델 '우뚝'

전남소방본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경연을 통해 도민 응급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실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전남소방본부는 20일 "도민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제15회 전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으며, 각 소방서를 대표해 선발된 44

개 팀 35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심정지 상황을 가정해 실제 응급상황에 참여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과 초기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았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응 절차를 반복 숙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문별로는 학생·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초등부 광양공립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학·일반부에서는 담양 1179부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나주 어린이집 원장 연합팀과 목포해양대학교는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팀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팀은 전남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 대상을 초등학생부터 군인, 일반인까지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일상 속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 방식이 현장에 적용된 셈이다. 전남소방본부는 향후에도 도민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심폐소생술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며 "도민 참여형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도민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제15회 전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보성차 산업, 생산 넘어 가공·유통까지 확대

전남농기원·보성군·생산자조합·기업 음료·가공식품 등 공동 제품개발 협약

전남농업기술원이 보성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연구·생산·가공·유통을 하나로 묶는 협력 구조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보성군, 보성차생산자조합, ㈜아로마빌커피와 '보성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관·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보성차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단순 원료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화와 유통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보성차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보성군, 보성차생산자조합, ㈜아로마빌커피와 '보성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맡고, 보성군은 정책·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보성차생산자조합은 제품 판매를 책임지며, 아로마빌커피는 가공제품 제조와 상품화, 유통망 확보를 자조합은 고품질 원료 공급과 품질관리, 지원한다.

특히 참여 기관들은 보성차 기반 음료와 가공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향유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성차생산자조합은 589개 차 재배 농가가 참여한 조직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로마빌커피는 음료 생산라인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제품 상용화와 판로 확대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자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연구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협력 모델"이라며 "보성차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강아지대통령' 이용중, 동시대 석좌교수 임용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37년 경험...실무교육 강화 기대

'강아지 대통령'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용중 교수가 동시대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22일 동시대대학교에 따르면 국내 1세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로 활동해 온 이용중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반려동물학과의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교수는 KBS '개는 훌륭하다', SBS 'TV동물농장' 등 방송을 통해 반려 문화 대중화와 동물복지 발전에 기여해 온 주인공이다. 올해 1학기부터 동시대 반려동물학과에서 반려견 행동교정(기초·응용·심화)과 행동교정 실무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풍부한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반려견 행동학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을 통해 전문 훈련가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조항지 기자 pose007@gwangnam.co.kr

김대원 회장, 불우이웃 후원금 2000만원 전달

〈브리브·L7 총장 롯데호텔 오너사〉

광주사랑의열매 전액 지정 기탁

광주 지역 기업인이자 나눔 실천가인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과 'L7총장 바이 롯데호텔'의 오너사 김대원 회장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 열매)는 최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김대원 회장, 이남경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 총지배인, 노진석 광주사랑의열매 사무국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임영우 선한기업100+원탁회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만원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금은 광주사랑의열매 지정기



광주 지역 기업인이자 나눔 실천가인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과 'L7총장 바이 롯데호텔'의 오너사인 김대원 회장(왼쪽 세번째)이 최근 성금 2000만원을 기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사랑의열매

탁을 통해 전액 지원되며, 고립 위기 이웃을 살피는 '1313 이웃살림 사업'을 위해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에 1000만원, '4대 사회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에 1000만원이 전달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은 롯데호텔 앤 리조트 라마다플라자 호텔을 리브랜딩해 운영하는 체인호텔이다. 김대원 회장은 사단법인 광주시관협회 이사, 의료법인 올리브 의료재단 이사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광주지역지원위원회 수석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쌀 기부, 강진군장애인종합학교 전달, 강진군 고항사리기부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광주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터 188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대원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헌혈' 15년째 생명나눔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 임직원 참여 1100명 돌파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0일 본사 사육 앞 헌혈버스에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5년째 이어온 공사의 정기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헌혈 수급에 기여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는 2012년 첫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15년째 헌혈 나눔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올해 누적 참여 인員 1100명을 돌파하는 등 임직원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



다. 김승남 사장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헌혈에 동참해 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소중한 생명나눔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게시판

알림
▲일기정정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2월 5일)

-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 60년생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 72년생 많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 84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 될 것
- 96년생 가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 51년생 현상태 불리하니 빨리 방향 전환해라
- 63년생 조성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 면한다
- 75년생 함께하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 87년생 전체적인 정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99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 54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조심시킬 것
- 66년생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라
- 78년생 너무 서두르면 손해만 보고 만다
- 90년생 이상에게 언행을 조심하라
- 57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없다
- 69년생 나의 고통은 내가 지초한다
- 81년생 부부 불화의 징조가 보이나 참아라
- 93년생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라
- 49년생 도처에 괴로움 보이나 걱정할 일 아니다
- 61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 73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기억을 하지 못할 뿐
- 85년생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
- 97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
- 52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 64년생 손해는 당한 것 같으나 실속 있다
- 76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해라
- 88년생 몸이 상할 우려있으니 화해하라
- 55년생 자금 회전이 쉽지 않다
- 67년생 꽃보다는 열매 실속을 취하라
- 79년생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할이라
- 91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 58년생 아랫사람에게 공박당할 수 있으니 주의
- 70년생 현재를 지켜라 새로운 일은 손해보다
- 82년생 오락에 빠져 적지 않은 시간을 버린다
- 94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 50년생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
- 62년생 귀하를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 아니다
- 74년생 노파심은 버려도 될 것
- 86년생 실리 위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니라
- 98년생 매사에 때 옳으니 성급 결정 주의하라
- 53년생 여자 관계를 조심하라
- 65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된다
- 77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들다
- 89년생 이성 운은 좋지만 감정이 생길 수 있다
- 56년생 하고 있는 그 근심은 약간 해결된다
- 68년생 배우자의 좋은 일이 생겨 복 들어온다
- 80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보라
- 92년생 주변에 많은 도움이 들어온다
- 59년생 귀하의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
- 71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가진 수확할 것
- 83년생 화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 95년생 시리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한다